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말들

강정희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잊어버린 말들의 풍경

남들은 지나간 겨울은 그리 춥지 않았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했다. 왜냐하면 새로 이사 온 집이 계룡산 자락에 지은 아파트여서 겨울 산바람의 냉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 그림자마저 더 빨리 내려앉아 겨울 하루 길이라도 시내보다 훨씬 짧았다. 어디 그뿐이랴, 눈이 오면 그대로 쌓여 있어서 외출을 하려면 7층 아래로 보이는 하얀 눈길을 헤쳐 나갈 일에 근심이 태산 같았다. 눈 쌓인 계룡산. 그림으로, 상상으로는 매우 낭만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아니었다.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려면 어느 정도의 대가는 감수해야 한다고 각오했지만, 계룡산 기슭으로 이사 오고 치른 첫 겨울의 대가는 생각만큼 가볍지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더한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이태 전 늦은 가을에 도시 생활이 싫어서 계룡산 감사 가는 길목에 황토 집을 짓고 이사했다. 그리곤 공기, 경치, 집 자랑으로 친구들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인다. 대전 시내에서 가려면 큰 맘 먹고 가야 하는 산속 황토 집은 여름도 좋지만, 겨울 온돌방의 진기는 도시 아파트 숲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시샘과 부러움을 건드

리다 못해 심사를 뒤틀리게 한다.

“야! 찹질방 가지 말고 우리 집 와. 저녁에 아궁이에 땀감을 넉넉하게 때면 말이야, 아랫목부터 윗목까지 절절 끓어, 군불 지펴놓고 거기에 고구마 구워 줄게, 제발 좀 놀러 와라.”

친구의 첫 집들이에 집알이하러 갔던 날.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까맣게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시골 고향집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나지막한 울타리 안으로 텃밭을 지나서 들어가는 황토 집 현관에는 잠금 장치도 없었다.

“무섭지 않니? 현관문에 키 장치 안 해도 돼?”

“그래 아직은…… 현관 키 해놔 봐야 별 수 있겠니? 이 산속에 뭐 훔쳐 갈 것 있다고, 대신에 개 두 마리 데려다 놔.”

(“현관 키도 없이 산다……?”)

일 년 열두 달 아파트 문을 꼭꼭 잠그고 사는 우리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옷풍은 없니? 구들은 어떻게 놔니?, 어머 장관 좀 봐!, 이거 네가 한 거야?”

“응, 니스 바르는 것보다 콩땀질하는 게 더 좋아서.”

“이 문풍지 좀 봐!!”

“응 방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몇 줌 부려봤지.”

이 친구 집에는 집안 분위기에 걸맞게 전통 가구들도 많다. 반닫이, 화로, 문갑 등등 크고 작은,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 폭 짙어 있는 가구들이 마루와 방방이 가득하다.

“이 나비장 열쇠 좀 봐, 정말 물고기 같잖아!”

놋쇠로 만든 반닫이에 달린 자물쇠를 보며 한 친구가 호들갑을 떨었다.

“어이구, 이 친구야!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라구!”

“뭘?? 자물쇠?”

“자물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열쇠는 이렇게 자물쇠 가운데로

끼워놓는 꼬챙이라구!”

“열쇠면 어떻게, 자물쇠면 어때, 그래도 참 좋다!!”

이렇듯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 친구 집엘 가면 우리들 입에선 그동안 쓰지 않아서 잊어버렸던 옛날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그렇다. 일상에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말들. 우리 친구들이 역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그 황토 집에 가면 술술 나오는 이 말들을 우리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을까?

2. 잊혀져 가는 말들

자연 생태계의 진행 중인 변화는 관찰 가능하지만, 말은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말은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바뀐다. 그러나 어떤 말이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죽어 가는지는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잊혀져 가는 말이란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인식 속에서 진행되는 정신 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단의 언어 변화는 일정한 시기를 경과한 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는 완성형으로서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말이고 물건이고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된다. 있던 것이 없어진다면 그것과 관련된 어휘는 물론, 관련 표현들도 무더기로 없어진다.

최근 30년 사이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집’과 관련된 생활어의 소멸이 이를 말해준다. 1970년 후반기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주거 형태가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아파트 건본 주택(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델 하우스’라고 했다.)의 평면도에는 단독 주택 시대에 쓰던 주거 공간 어휘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안방, 건넌방, 문간방’은 ROOM 1, 2, 3이나 방 1, 2, 3으로, ‘부엌’은 ‘주방’으로, ‘마루’는 ‘거실’로 대체되어 버렸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공간에서 ‘방’ 이름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신세대들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사랑방’을 ‘찜질방, PC방’ 같은 오락실과 같은 방으로, 표준어 규정에 나와 있는 양반 댁 안방에 딸려 있는 가구 진열방인 ‘머릿방’이 한글 맞춤법 공표 시기 훨씬 이전에 없어진 방 이름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다. 또한 아파트 방들의 출입문에는 ‘문지방’이 없다. 이것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때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없애 버린 실용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다. 그러니 ‘문지방’이 없으니 ‘문턱’ 또한 있을 리가 없다. ‘문턱이 닳도록 문지방을 드나들다’라는 말도 언제까지 생명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부엌’과 관련된 말들은 어떠한가?

‘정제, 정지간, 정지’ 등은 ‘부엌>부엌’의 사투리들이다. 옛날 초가집 ‘정지’에는 쪼방석을 깔고 앉아서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부지깽이’로 무쇠 솔 걸어 놓은 부뚜막 밑으로 불을 때던 ‘아궁이’란 것이 있었다. 이 아궁이는 주거 형태의 변화로 ‘양옥’인 단독 주택 시대에는 ‘연탄 아궁이’, 아파트 시대인 요즈음은 ‘가스레인지’로 진화되었다. 그래서 ‘아궁이에 불 지핀다, 안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앉는다, 부지깽이, 연탄집게, 연탄재, 연탄불 같다, 연탄구멍 맞춘다. 불이 팔다’ 등의 표현들은 현재 60대 이상 노년층의 추억담에서나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아파트에는 ‘현관문’은 있으나 ‘대문’은 없다. ‘대문’이라는 말도 현재 죽어 가고 있는 말들 가운데 하나이다. 전통 한옥의 ‘대문’과 관련된 ‘빗장’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말이다. 따라서 ‘빗장 걸다’,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 않고 반 정도 걸쳐 놓는 ‘사로 잠그다’란 표현도 우리들 기억 속에서 찾을 수 없는 말이 되어 버렸다.

‘빗장’과 관련된 잠금 장치인, 앞에서 말한 친구 집의 반닫이에 걸린 ‘자물쇠/자물통’은 요즈음은 뭉뚱그려서 ‘열쇠’로 통칭하고 있다. ‘자물

쇠/자물통'은 현재 모든 출입문에 장착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름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이 어휘는 현재 사전 안에 박제된 채 남아있을 뿐이다. 또한 '열쇠'는 한 동안 외래종인 '키(key)'와 공존하면서 우리들 생활 안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의 출입문과 자동차의 잠금 장치가 모두 전자 칩을 내장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둘의 생명력도 어느새 시들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열쇠'나 '키' 없이 사는 디지털 세상이 오면 이 두 어휘도 죽음을 맞이할 대상이다.

주거 공간 어휘 중 가장 이름이 고급화된 것은 '뒷간'이다. 이 '뒷간'이 일제 강점기에 '변소'로 상승(?)하더니, '변소'는 어느새 '화장실'로 품위를 갖추게 되었다. 뒷마당 구석이나 대문 옆 귀퉁이 장독대 밑에 있던 '뒷간'과 '변소'. 이 어휘들은 오늘날 '처가와 뒷간은 멀수록 좋다'라는 관용 표현이 '처가와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좋다'로 패러디되고 있는 걸로 미루어 보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세식 '화장실' 변기 속으로 휩쓸려 사라진 게 분명하다.

'집' 관련 어휘의 삶과 죽음은 이와 관련된 소개업의 어휘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복덕방, 사글세'의 소멸이다. 이 두 어휘의 죽음은 지금부터 불과 10~20년 사이에 일어났다. 1990년대에 직업의 전문화 추세로 등장한 '공인 중개소'에 밀려서 사라진 '복덕방'은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장구나 바둑을 두다가 집을 구하는 사람이 오면 집이나 방을 소개하고 약간의 소개비를 받던, 그야말로 '복을 팔고 덕을 쌓던 방'이었다. 또한 '삭월세'가 아니라, '사글세'라고 누누이 강조하던 '사글세'가 '월세'에 밀리기 시작한 시기는 불과 지금부터 10여 년 전 일이다. 요즘 대학가 주변의 '자취생 구함' 광고지를 자세히 보면 '전·월세'는 보여도 '전·사글세'라는 어휘는 찾아볼 수 없다.

동네 입구에 어김없이 있던 '구멍가게, 담배 가게'도 이제는 '마트'나

‘담배 자판기’에 밀려나고 있는 우리 동네 옛집 이름들이다.

이와 같이 주거문화 형태의 변화로 인한 우리들의 삶의 환경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던 생활어를 우리들 기억 속에서 밀어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조차 모르며 산다.

3.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체들은 보호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전 국민의 애통 가운데 화재로 전소되었던 유형 문화재인 ‘송례문’도 원형 그대로 복원 작업 중이다. 그러나 말은 그렇지 못하다.

말은 생물체와 유형 문화재처럼 대상화, 객관화할 수 없는, 말하는 사람의 정신세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내가 쓰던 말이 소멸되고 오염되고 파괴된다는 것은 곧 내 정신세계의 어떤 영역의 소멸이자 오염,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족으로 확대될 때, 민족어의 소멸은 곧 민족정신의 소멸이라는 등식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말의 생로병사는 말하는 이의 생로병사와 함께한다. 어렸을 때 쓰던 말을 60이 넘은 지금 나는 다 기억을 못한다. 가끔 우리는 지나간 날 일기나 책 한 모퉁이, 수첩 어느 한 장에 메모해 두었던 기록들을 만날 때,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린, 그 시절에 썼던 말들을 보며 새롭게 느낄 때가 있다.

이처럼 잊어버려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말을 복원할 수 있으려면 ‘기록’하는 일만 충실히 해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일을 글로 남겨 놓는 일이야말로 우리말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요즘 우리들의 일상적인 글은 문자나 이메일로 대신한다. 파일로 보관하는 일은 중요한 서류 정도이고, 그 외의 일상적인 글들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용량 부담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상례가 되어 버렸다.

우리들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게다가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사는 단절되고 소멸되어 대물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세계 언어 중 소멸된 언어들의 대부분은 기록물이 없는 언어들이다. 언어의 소멸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앞에서 말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말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 말은 죽는다. 언어의 죽음은 사회적 압력에 의한 '타살과 사람들이 쓰지 않아서 잊어버려서 결국은 잃어버리는, 이른 바 '자살(자연사)로 비유할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쓰던 말이 없어졌다.'는 현실은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된 결과이다. 그러하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쓰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결국은 잃어버리는 우리말들'을 되살리고 대물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소멸 위기에 놓인 말을 찾아내어 음성 자료와 문자로 기록해 놓는 일이다. 사실, 자료집에 문자로 기록된 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말'은 아니다. 그래도 기록되지 않아서 영원히 자취조차 추적할 수 없는 말보다는 그 생명력이 훨씬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서해안 바다에서 어로 생활을 하는 어민들은 넓디넓은 갯벌에서도 낙지나 게, 꼬막조개가 묻혀 있는 곳을 한 눈에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갯벌 깊숙이 숨어 있는 낙지, 개불, 게, 꼬막조개 등을 누구보다도 쉽게 캐낸다. 이러한 일은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런 어로 작업에 관한 한 서해안 어민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잃어버린 말을 찾는 일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우선 전문 조사 연구원의 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훈련된 조사원들에게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깊숙이 숨어 버리거나 사라져 버린 말들을 캐내는 방법과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한다.

국립국어원이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린 말과 소멸 위기에 놓인 생활어 기초 어휘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2013년 끝나는 이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는 아마도 반세기나 1세기 후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때 21세기 초기에 한국인들이 사용하던 생활어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를 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 사업을 위하여 잃어버린 말을 찾으러 다니던 연구원들의 이름만이라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